

불화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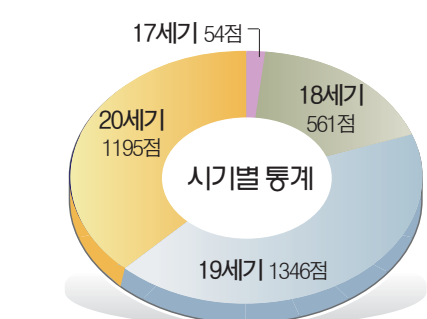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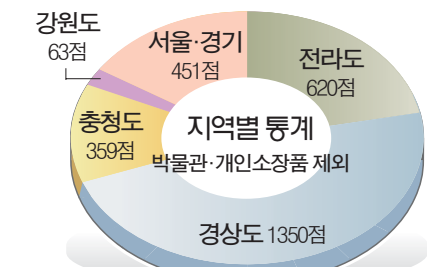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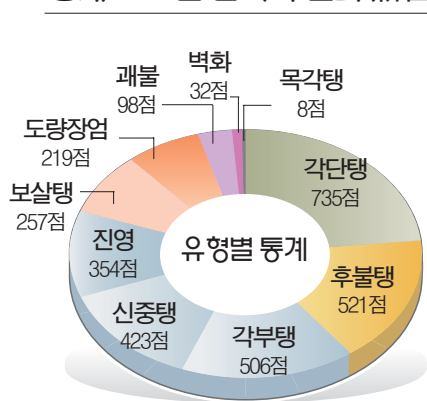
우리나라 사찰과 박물관이 소장한 불화는 총 3153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각단탱(735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세기 조성돼 남겨진 불화 35점 중 23점이 괘불이며,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전체 불화의 3분의 1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해이) 20여년의 노력 끝에 완간한 <한국의 불화> 40권에 실린 불화를 토대로 집계한 것이다. 11월 10일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10회 불교미술사학회 학술대회에서 범해이 원장은 <한국의 불화> 조사 회고와 앞으로의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의 불화>에 실린 불화의 종류와 지역적 특성 등을 설명했다.

범해이 원장의 집계에 따르면 <한국의 불화>에 수록된 불화의 수는 총 3153점이다. 각단탱이 총 735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후불탱 521점, 각부탱 506점으로 나타났다. 단일유형으로는 신중탱이 423점에 이른다. 후불탱 중에서는 아미타후불탱이 가장 많은 220점이고 그 다음이 석가모니후불탱인 180점이다. 또 각단탱에서는 칠성탱이 284점으로 두 번째로 많은 산신탱(155점)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아미타후불탱과 칠성탱 모두 19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조성된 것으로, 이로써 한국 불교가 내세 기록 위주로 변화한 시기가 짐작된다.

시기별로는 17세기 이전에 조성된 불화가 19점 전체인데 이중 벽화가 9점이다. 현재 벽화를 제외한 나머지 10점의 불화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17세기 조성돼 남겨진 불화 35점 가운데 23점이 괘불인 것도 주목된다. 괘불은

통계로 보는 한국의 불화(佛畵)



전시기를 통틀어 20세기 전반에 조성된 26점을 제외하고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전반에 대적으로 조성됐다. 이것은 17-18세기에 의례 절차상 괘불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나 괘불의 사용빈도가 많았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지역적으로는 경상도에 우리나라 전체 불화의 30% 이상이 있다. 가장 적은 수의 불화가 남아 있는 곳은 강원도로, 사찰의 수는 많지만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사찰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전남지역은 53불탱과 화엄탱, 밀교계 도상인 범신중위회37존도 등 특이한 도상이 전해지는데 이는 지역의 신앙적 특징을 알려준다.

범해이 원장은 "앞으로 북한 및 해외소재 불화를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대중이 불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출판물 발간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02)701-6830 조동섭 기자

Tip 불화용어

- ▲후불탱: 각 산상 뒤에 봉안된 불화로, 석가불탱·약사불탱·아미타불탱·비로자나불탱·삼신불탱 등이 있다.
- ▲괘불: 야외에서 의식을 치를 때 내어 가는 대형 불화 ▲신중탱: 호법신인인 법천·제석·전륜왕·사천왕 등 여러 유형의 신중들을 그린 불화 ▲각부탱: 불전의 후불탱과 보살탱·신중탱을 제외한 불화로, 팔상탱·시왕탱·나한탱처럼 하나의 주제이지만 여러 쪽으로 나누어진 불화 ▲각단탱: 예경의식에서 칠성단·독성단·산왕단 등 각 단에 봉안된 불화로 감로탱·현왕탱·칠성탱·독성탱 등이 있다.



11월 13일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불교정책을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 "10·27법안 특별법 제정" 종단협 초청 간담회 참석 불교정책 공약 발표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3일 서울 하림각에서 '제17대 대통령 선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후보는 ▲불교관련 각종 법령 제·개정 ▲불교문화와 유적의 계승 발전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한 불교문화행사 지원 ▲국제불교문화교류센터 건립 ▲파리미터 청소년협회를 정부 육성 ▲청소년단체로 지정 ▲남북불교교류와 북한불교 문화재 복원사업 지원 ▲지속적 공양실천을 위한 불교전통문화연구소(가칭)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불교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이 후보는 "지난 11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대 종단 대표들을 초청해 공직선거를 다짐하는 모임을 가졌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용규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지관 스님에게 부산 벡스코 행사 등에 대해 교단을 대표해 불교계에 사과하고 두 종교간의 화합을 위해 힘쓰자고 말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주일 기자

이라크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한국교인평화회의(회장 최근덕, 이하 KCRP)가 지난해에 이어 이라크 어린이들의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는 '이라크 어린이(일반) 환자 초청 치료사업'의 일환이다.

이번에 입국한 어린이는 모두 8명이다. 이 중 2명의 어린이가 서울 대 병원에 입원했고, 이들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에서 파견한 자원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다. 불교여성개발원 봉사자들이 돌보고 있는 두 어린이 라나(12)와 무니

김주영 기자

종주사서 국제포교사 재교육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제포교사들에 대한 재교육이 11월 10-11일 화성 종주사에서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충)이 개최한 이번 연수에는 30여 명의 국제포교사가 참석했다. 교육은 입석식에 이어 보림 스님(안산 보문선원 주지)의 '불교 외국인 이주민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포교사의 역할' 강의와 국제포교사 역할찾기 워크숍, 정락 스님의 '자원봉사 신나게 하는 방법', 윤정숙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의 '아름다운 동행'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김주영 기자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마미로봇**

Mamirobot KVM (주)경인메카트로닉스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가격) 입금계좌: 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학)

I Love Buddha / 정말 소중한 것들

웅정운(www.zentoon.com)

교계단체들 "청정위 구성을" 총무원 미온적 태도에 반발

불교계 단체들이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을 강하게 질책하며 청정위 구성을 재촉하고 나섰다. 불교여성개발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8개 단체는 11월 12일 성명서를 통해 "청정위원회 구성이 결국 무산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중도들을 철저히 무용하는 행위로 종단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고자하는 의지가 없음을 반증할 따름이다"고 비판했다.

단체 실무자들은 11월 13일부터 매일 오후 1시 총무원 청사 앞에서 종단청정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戒 金剛戒壇 具足戒 山林大法會 行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수계산림대법회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합니다

本證 大和尚 龍海, 慧隆, 聖雲 大和尚
尊證 阿사리 錦峰, 明鐘, 修岩, 松隱, 圓覺, 慧雲, 法雲
奉行委員長 圓覺 金剛戒壇長 智空

수계산림일정 : 불기 2551(2007) 정해년 11월 5일 - 11월 7일
입제일 : 2007(정해)년11월 5일 / 회향일 : 2007(정해)년 11월 7일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불선교종

총무원: 서울 강북구 수유 5동 440-27 엄지빌딩 4층/ 전화 (02)998-8161,2